

비노바 바베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원리 탐색:

- *Talks on Gita*(천상의 노래)를 중심으로 -*

고진호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요 약】

이 논문은 비노바 바베(Vinoba Bhave)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원리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노바 바베의 종교 사상에는 영성과 사회적 다르마를 실천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울러 그의 종교는 실천적 영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비노바의 종교사상은 사회적 개혁과 영성혁명 교육의 실천의 통합적 의미를 제공한다. 비노바의 종교사상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요가철학(Yoga philosophy)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노바는 그의 Gita 강론서인 *Talks on Gita*(천상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 이야기)를 통해서 요가철학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이 논문에서는 비노바의 종교사상내에 존재하는 영적 지향, 사회적 개혁, 교육적 실천의 통합적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비노바의 요가철학의 원리와 특성을 실천적 영성의 구현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비노바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원리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탐색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비노바 바베(Vinoba Bhave), 통합적 실천사상, 요가철학적 원리 *Talks on Gita*
(천상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 이야기) 사티아 그라하(Satyagraha), 부단(Boodhan),
나이탈림(Nai Talim)

머무르지 않고 머무를 곳도 없다.

Veda

* 이 논문은 영성교육실천가인 고 유상덕(전 한국교육 연구소장: 1949~2011)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작성된 글임을 밝힌다.

I. 서론

비노바 바베(Vinoba Bhave)(1895-1962)는 인도의 대표적 영성사상가이며, 사회 개혁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비노바는 그의 스승이자 동료인 마하트마 간디(M. Gandhi)와 함께 진리파지 운동인 사티아 그라하(Satyagrah)에 참여한 바 있고,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해 토지를 헌납하는 ‘부단(Boodan)’운동을 주도 해 온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실천운동을 통해서, 인도사회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노바의 사회적 실천 운동에는 정치 경제적 의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대중들의 영적 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통합적 실천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사상가로서 비노바 바베는 신애(信愛)의 정신을 강조한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신애의 정신은 신에 대한 헌신의 의미와 함께 일반 대중들을 위한 섬김(봉사)으로서 사회적 다르마(Dharma)의 실천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복합 개념이다. 이러한 그의 종교적 관점은 종교적 행위와 사회개혁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비노바는 신애(bhakti)의 정신을 대중들에 대한 섬김의 정신으로서 승화 연계함으로서, 사회적 개혁과 영적 혁명을 동시에 추구한 인물로 평가된다.¹⁾ 따라서 비노바의 종교사상에 있어서 영성, 사회적 운동, 교육적 실천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내에서 구조적으로 연계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노바의 종교사상은 인도의 고전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노바는 인도의 대표적 고전인 Baghavard Gita를 마라티어(인도의 지방언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국과의 정치적 투쟁시기에 이 문헌을 강론(講論)한 바 있다. 비노바는 이러한 지적 활동을 통해, 종교 활동과 사회적 운동 그리고, 교육적 실천이 상호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그의 종교사상의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비노바는 종교가 특정한 나라 혹은 카스트(Caste)에 속하거나 맹목적으로 특정한 신(神)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종교는 일종의 영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²⁾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종교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고, 형제우(兄弟友)를 발전시키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노바의 종교적 관점은 종교가 대중들의 복리를 위한 사회적 운동과 의식의 성장 등을 위한 교육

1) Kalindi, *Moved by Love-the Memoris of Vinoba Bhave*, 김문호 옮김, 『명상과 혁명』(서울: 실천 문학사, 2012) 이 책은 이후 『ML(명상과 혁명)』으로 표기함

2) 김진 편역, 『홀로 걸으라, 그대 가장 행복한 이여: Vinoba Bhave 포토 명상집』(서울: 예담, 2006.), 174쪽.

적 실천등과 통합적 차원에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초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노바의 종교사상에는 영성, 사회, 교육의 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하는 원리를 그의 요가철학(Yoga philosophy)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다. 비노바의 요가철학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의 길을 수련하는 의미도 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요가는 영적 측면에서 사회적 다르마(Dharma)를 구현하는 실천 방법론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Talks on Gita(천상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 이야기)³⁾에 시사되어 있다. 비노바 바베가 제시하고 있는 무욕(無欲)의 행위(akarma)는 욕심이 완전히 배제된 행위로서, 행위에 따른 보상(열매)을 포기한 순수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욕의 행위는 비노바가 요가철학에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최상의 영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비노바 바베는 무욕의 행위가 단지 종교적(영적)인 행위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이나 교육적 실천에서 추구해야 할 실천가의 활동(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비노바 바베의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탐색은 목적은 종교가 단지 영성추구의 범위 내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 운동, 교육 실천과 연계됨으로서, 종교가 대중들의 삶과 연계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색은 이미 유상덕과 최영란에 의해서 시도된 바 있다. 유상덕은 교사교육의 측면에서 비노바 종교사상의 특징을 논구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 교사교육이 과학주의적 관점에서만 조명되는 상황과 교사위상이 급전직하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영적차원에서의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비노바의 요가철학적 관점을 통해서 교사의 실천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탐색을 시도한 바 있다.⁴⁾ 그리고 최영란은 인도의 신교육(Nai Talim)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조명을 통해서,⁵⁾ 비노바의 교육론에 내재된 영성을 구명하고, 그가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여 추구한 바 있는 삶과 교육의 연계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국내에서 시도된 비노바 바베에 관한 두 선행논문을 참고로 비노바 바베의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원리를 요가철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영성과 비노바의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 그리고 교육적 차원이 종교사상 내에서 일련의 통합되는 연관성을 논의 하

3) Vinoba Bhave, *Talks on Gita*, 김문호 옮김, 『천상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 이야기』(서울: 실천 문학사), 2002. 참조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IV장의 주 30)을 참조하기 바람.

4) 유상덕,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의 교사론적 함의」, 미발표 논문, 2005

5) 최영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교육-Vinoba Bhave의 나이 탈림(신교육 운동)」 만해 NGO 교육센터, 씨알 평화 창립 기념 발표논문, 2006.

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운동과 교육적 실천 행위가 영적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의 제 II장에서 비노바가 주도한 사티아 그라하(Satyagraha)와 부단(Boodhan)운동에 내재된 진리추구의 정신(영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인도의 신교육 운동인 나이탈림(Nai Talim)을 교육과 실천적 영성의 연계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제 IV장에서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원리를 비노바 종교사상의 특성과 요가철학의 구조적 원리, 교육과 요가철학의 연계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서, V장에서는 비노바 종교사상의 이러한 통합적 성격의 비노바의 요가철학적 구조적 원리 속에서 체계화되고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실천과 영성과의 연계

1. 진리추구의 실천 과정

비노바 바베(Vinoba Bhave)⁶⁾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가고데(Gagode)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가문은 인도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세속적 안락한 삶을 포기한다. 비노바는 10세 무렵부터 이미 금욕적 수행을 의미하는 브라마 차리아(Bramacharya)를 실천한 바 있다.⁷⁾ 비노바가 종교적으로 추구한 영성은 특정한 신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의 영성은 특히 대중들을 위한 봉사⁸⁾인 동시에 일종의 진리추구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6) Vinoba Bhave의 본명은 'Vinayak Narahari Bhave'이다. Vinoba의 Vино는 코끼리 머리를 가진 지혜의 신 가네샤를 일컫는 또 하나의 이름 비누(Vinu)에서 파생된 것이다. Ba는 어머니를 뜻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그의 모성애적이고 여성적인 성품 때문에 훗날에 붙여진 것이다. Bhave는 그가 브라만 가문 출신임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비노바 바베와 약칭 비노바를 혼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Kumar, Satish, *The Intimate and Ultimate*, 김문호 옮김, 『버리고 행복하라』(서울: 산해, 2003), 6쪽. 이 책은 이후 『TIU(버리고 행복하라)』로 표기함.

7) 브라마 차리아(Bramacharya)는 육체적인 충동들, 특히 성적인 충동을 다스리는 금욕적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추후 비노바에게 일체의 욕심을 제어케 하는 힘이 되었다. 『ML(명상과 혁명)』, 72쪽.

8) 힌두적인 의미에서 다르마(dharma)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규범으로서의 다르마이다. 이는 정해진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신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다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선업으로서 다르마이다, 이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는 사물로서의 다르마의 의미인데, 다르마를 존재(法)으로 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 다르마는 주로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종교학 대사전, <http://terms.nave.com/enry.njhn?docId>(Naver 종교학 대사전)

다. 이러한 그의 영성 관은 종교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관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노바에게 있어서 종교는 일종의 사회적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실천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실천은 가장 고결한 행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노바는 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사티아 그라하(Satyagraha)와 부단(Boodhan)⁹⁾과 같은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적 실천의 전범(典範)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사티아 그라하는 비폭력적 투쟁을 의미하는 아힘사(Ahimsa)와 함께 실천되었지만, 이 운동을 정치투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 사티그라하의 본질은 진리추구의 정신이라는 점에 있다.¹⁰⁾ 이러한 사실은 비노바의 사회적 운동이 신애(信愛)의 정신 다시 말해서 신(神)을 위한 헌신과 영적 추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에 내재된 특성은 토지의 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 부단(Boodhan)운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진리 추구의 정신에 대해서 비노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티아그라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진실들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람단(Gramdan)¹¹⁾운동 역시 사티아그라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폭력 저항의 일부이자, 사티그라하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념을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건설적인 사티그라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에 온 생애를 걸고 매달리는 사람은 항상 사티아 그라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¹²⁾

사티아 그라하와 부단 운동의 성격은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평등실현을 위한 사회 운동이라는 점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회운동은 모두 진리추구(영성의 실현)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운동에 있어서 실천적 행위의 순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비노바는 보고

9) 부단(Boodhan)운동은 비노바가 전개한 토지 나눔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사회 운동이다. 비노바는 인도 전역을 13년간 레하면서, 지주들과 만나 500만 에이커-이 토지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크기이며, 스코틀랜드 면적과 동일-의 땅을 무상으로 헌납 받았고, 이러한 땅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기층민(基層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0) 김 진 편역, 앞의 책, 43쪽.

11) 그람단(Gramdan)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특정 마을의 토지 전체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기층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부단 운동의 한 형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람단과 부단은 사실상 동일한 운동이며, 그람단과 같은 토지헌납운동을 부단-그람단(Boodan-Gramdan)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12) Vinba Bhava, *Vinoba Bhava on Gandhi*, 김문호 옮김, 『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서울: 오늘의 책, 2003), 108. 이 책은 이하 『VBoG(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로 표기함.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 실천가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는 사회적 다르마의 실천이 올바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신애(信愛)의 정신과 무욕의 행위(akarma)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 바베는 사회적 운동에는 반드시 실천적 영성(實踐的 靈性)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점에서 진리의 반복된 실험을 강조하고 있다. 비노바는 이러한 진리의 정신에 의해서 구현된 사회적 실천만이 대중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주장한다.¹³⁾ 이러한 사실은 비노바의 종교사상에는 사회운동과 종교의 정신을 결합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앞에서 언급한 실천적 영성으로서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비노바의 종교적 사상은 종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추구의 정신을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함을 영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그 위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노바의 궁극적 인식

앞에서 언급된 진리추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비노바는 궁극적인 인식이라고 보았다. 그는 궁극적인 인식은 근원적 사유와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비노바는 근원적 사유는 자기 이해에 기반한 완벽한 앎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자기이해적 지식은 지식의 객관적인 조건만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 사유에 기반한 지식은 영감(靈鑑)과 체험(體驗)으로 획득되어 지는 직접적 지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심적 균형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한 영지(靈知)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지식을 다른 측면에서 언급한다면 신(神)의 섭리(攝理)를 이해하는 앎으로서의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힌두교적 의미로 언급한다면 나(Atman)와 신(Brahman)과의 일치체험을 의미하는 범아일여적(梵我一如)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노바의 종교사상적 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은 영적 차원

13) 이러한 비노바의 입장은 간디(M.Gandhi)가 사바르마티와 세바그람 아쉬람(Sevagram Ashram)에서 행한 두 가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간디가 두 가지 진리실험 중 하나는 개인의 정신적 발전에 관한 실험이었고, 둘째는 사회실천활동에 대한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는 사회활동이 없는 진아탐구는 무력할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노바는 간디를 정치적 자유와 영적인 발전 모두를 이룬 인물로 평가하면서, 간디의 내면과 외면의 일치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자신을 무욕의 행위(akarma)를 추구하는 카르마 요가(karma-yoga)의 길로 이끌었노라고 술회하고 있다. 『VBoG (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22쪽.

에서만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진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노바의 궁극적인 지식은 편협된 사고나 감정에 집착함이 없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영적 지식인 동시에, 대중들을 위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지식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비노바는 이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궁극의 지식없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변형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운동을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한 면만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영적이며 브라바디아 즉 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중략) …… 『기타』에서 프라나(Prana) 즉 지혜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디(Buddhi), 즉 지성 혹은 지는 일반적인 단어이다. 지성은 사람의 정신에 따라 변한다. 또한 상상과 감정의 다양한 색깔에 따라 좌우된다. 편협된 지성으로는 어떤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감정이나 상상에 얽매이지 않는 지성, 즉 편견과 선호, 집착과 편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성만이 지식을 얻는데 유익하며, 그자체가 곧 지혜이다.”¹⁴⁾

비노바 바베(Vinoba Bhave)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식은 지혜(知慧)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지혜는 지식과 실천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지식이다. 비노바가 추구하는 지혜는 신에 대한 탐구와 신의 정신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비노바는 이러한 영적 지식이 지식으로서의 과학적인 특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¹⁵⁾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가 추구하는 궁극적 인식은 간디(M.Gandhi)가 표방한 진리추구를 위한 실험정신과도 일치한다. 궁극적 인식은 신을 알기 위한 인식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과학과 영성이 결합된 지혜, 그리고 실천적 영성을 내재한 사회실천적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비노바는 궁극적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원적 사유와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비노바는 근원적 사유와 사랑의 마음은 인간이 악(惡)을 악으로 맞서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노바는 앞에서 언급된 사티아 그라하나 부단운동과 같은 사회적 실천운동을 통해서 사유와 사랑의 정신에 내재된 실질적인 힘을 입증한 바 있다. 비노바는 사랑의 마음과 근원적 사유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근원적 사유를 통해서 고통을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14) 김 진 편역, 앞의 책, 163쪽.

15) 비노바 바베는 이러한 점에서 과학과 영성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적인 통찰과 물리적인 과학은 모두 마음 그 자체를 초월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노바는 “과학+영성=사르보다야 신의나라”, “과학+정치=완전한 재앙”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진 편역, 앞의 책, 137쪽.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¹⁶⁾고 보고 있다.

III. 교육실천과 영성의 통합

1. 교육적 실천에 내재된 영성

비노바는 인간존재는 근원적 사유를 통해서만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노바가 이러한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수동적인 교육이다.¹⁷⁾ 이러한 수동적 교육의 전형이 삶과 괴리된 교육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수동적인 교육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자연스러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배움을 통해 완벽한 자기 확신을 갖게 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이러한 자기 확신을 통해 두려움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용기(勇氣)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이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 바베의 종교사상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운동의 영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운동의 영적 의미를 이해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다. 그는 대중들이 사회적 운동에 내재된 이러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사회적 운동이나 영적혁명을 통합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 바베는 특히 나이 탈림(Nai Talim)과 같은 교육적 실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비노바는 나이탈림과 같은 신교육에서 표방하는 교육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추구(眞理追求)의 정신을 대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노바가 전개한 인도의 신 교육운동인 나이 탈림(Nai Talim)¹⁹⁾은 서구교육과는

16) 최영란, 앞의 글, 6쪽.

17) 『TIU(버리고 행복하라』, 31쪽.

18) 『TIU(버리고 행복하라』, 85쪽.

19) 나이 탈림(Nai Talim)은 간디가 세운 세바그람 아쉬람(Sevagram Ashram)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새로운 방식의 기초 교육이다. 비노바는 이러한 나이탈림을 영원히 새로운 교육(Ever-New-Education)인 동시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교육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말은 나이탈림은 고전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현대 교육으로서도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이탈림은 인도의 고대어 “세샤 낙(Sesha-Nag)”에서 유래한다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에는 창조의 바탕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말하며, 물질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이 사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최영란, 앞의 글, 8쪽.

완전히 구분되는 나이 탈림은 일반적으로 신교육 운동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교육은 인도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교육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나이 탈림은 서구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과 지식, 삶과 앎의 이분법적 구분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대신 나이탈림에서는 삶을 통한 배움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나이탈림은 단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현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나이탈림 영적 추구를 통해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 교육적 특성 또한 내재하고 있다.²⁰⁾

비노바를 흔히 길 위의 교육자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그의 교육적 실천이 그의 삶의 여정과 일치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의 교육은 구도(求道)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도의 과정은 동시에 대중들을 위한 섬김의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이 탈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표방하고 있다.²¹⁾ 먼저 제 1원리는 자기충족적 교육의 지향이다. 이러한 교육적 원리는 의식주의 자립적 해결, 자신에 대한 감정과 생각의 통제, 완전한 자기 지식의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 다음으로 제2원리는 두려움에 벗어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육의 원리는 용기(勇氣)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관련되어 있다. 비노바는 진정한 교육은 용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미의 진정한 교육은 사랑과 평화의 힘을 강화시키는 행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 3원리는 노동과 지식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배움이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삶과 앎의 일치 교육에 있다.²³⁾

비노바의 나이탈림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적인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다. 그가 강조하는 자연적 교육은 일차적으로 환경적 자연(Nature)과 일치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동시에, 인위성과 의도성이 배제된 교육을 의미한다. 그는 자연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단지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서 폐기되어야 될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는 교육을 외부적 교육과 내부적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²⁴⁾ 외부적인 교육은 외부에서 아이들이 배움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교육이며, 내부적인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의 배움을 통한 교육이다. 비노바는 외부적인 교육

20) Vinoba Bhave, *Thought on Education*. 김성오 옮김,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서울: 착한 책가게, 2014.), 17쪽. 이하 이 저술은 『ToE(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로 표기함

21) 최영란, 앞의 글, 8쪽.

22) 최영란, 앞의 글, 15쪽.

23) 같은 글

24) 『ToE(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49쪽.

보다는 내부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마음의 작용과 배움의 의미를 비노바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음의 작용과 배움은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마음의 작용과 배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두 가지 교육에 대해서 비노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두가지 교육중에서 내면적인 교육, 즉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얼(atma)의 성숙은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 내밀한 곳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을 위한 수업계획표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 (중략) ……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교육, 특히 공식 교육이 불완전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누구도 빨달린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²⁵⁾

비노바는 특히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배움(learning)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배움에 대한 관점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어린이들이 배움이 중요하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가 필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움을 강조하는 교육적 특성은 앞에서 그가 언급한 자연적인 교육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자연적인 교육에서는 최대한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배제된 배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움에 대한 강조는 앞의 인용문의 내면적인 교육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비노바는 교사조차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지, 배우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배움을 의식하는 인위적인 배움은 자연스러움을 상실하게 되며, 어린이의 근본적인 흥미와도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교와 교육의 연계적 실천

비노바 바베가 제시한 교육론은 교육과 종교성(영성)을 긴밀하게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의 교육론은 일반적인 보편적 교육과 종교교육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노바의 교육론은 동시에 특정한 이념적 목적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교육특성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비노바가 앞에서 말한 자연스러움의 교육론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비노바가

25) 『ToE(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53쪽

강조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은 삶과 얹의 통합할 뿐만 아니라, 종교와 교육을 연계적으로 실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그의 교육론적 특성은 그의 교육론이 인도의 삶에 근거하는 전통적 고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노바가 고전들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²⁶⁾을 종교와 교육의 통합적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는 창조자의 뜻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스루티(shruti)이다. 이는 신이 뜻하는 의지를 자기 지식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예언자(교사)는 앞에서 말한 스루티를 체험한 뒤 가르침을 통해서 전승시키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승리티(sumriti)라고 한다. 셋째는 창조를 의미하는 크리티(kriti)이다. 이 내용들은 고전의 내용에 대한 창의적으로 해석과 적용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교사의 활동 학생의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의 최종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의미는 현재의 삶의 맥락에서 고전의 내용을 진리로서 채용함으로써, 이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의 종교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비노바의 종교교육은 대중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헌신적 삶을 위한 교육인 동시에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영성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비노바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시키는데 있다. 비노바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의례(儀禮)나 제사(祭祀)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교육보다도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의 종교적 심성을 도야하는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V. 종교사상의 통합적 실천 원리

1. 종교사상의 특징과 구조

비노바 바베(Vinoba Bhave)에게 있어서 종교와 사회적 운동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닌다. 그리고 비노바의 종교사상은 특성과 구조에 대한 탐색은 종교성(영성)과 사회운동, 교육적 실천의 통합적 원리를 탐색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이이러한 비노바의 종교사상의 특성을 논의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중

26) 『ToE(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95쪽.

교사상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통합적 체계성이 사회적운동과 교육적 실천 그리고 종교의 단순한 집합적 연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체계성은 일련의 구조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노바의 종교사상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종교성(religiosity)을 의미하는 영성(spiritualtiy)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노바 바베는 사회적 실천 행위의 지향점을 종교적(영적) 차원과 연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비노바 바베적 영성은 특정한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비노바 종교사상은 인도의 사상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힌두이즘에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비노바는 이러한 힌두이즘(Hiunduism)을 특정한 종파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인 종교정신을 구현하는 영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비노바 바베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종교를 강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카스트나 어떤 공동체에도 매어 있지 않다. 전 세계를 위해 숭고한 사상의 영역을 고양시키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는 삶을 고매한 사상에 동화시키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이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세우고, 세계의 형제우(兄弟友)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탐구의 이상이다.”²⁷⁾

비노바의 종교사상은 단순히 정신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될 때만이 의미를 지닌다. 비노바에게 있어서 종교는 대중들을 위한 섬김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회적 다르마(Dharma)를 실천하는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비노바가 자신의 종교사상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신의 은총(恩寵)은 단순한 신이 대중들에게 베푸는 영적 구원(救援)으로서만 의미와 아울러, 정치 경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불우하거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기층 대중들의 복리(福利)를 위한 사회적 실천 운동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그의 종교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구현과 사회적 다르마의 실천을 연계하는 원리들이다. 비노바는 자신의 종교사상의 통합적 특성과 원리를 인도고전인 *Baghavard Gita*²⁸⁾를 강론한 *Talks on Gita*(천상의 노래)²⁹⁾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27) 김진 편역, 앞의 책, 174쪽.

28) 힌두교의 성전으로 알려진 *Baghavard Gita*는 모두 18장 670여 절로 구성되어 있다. *Gita*는 인도의 3대 주신(主神)의 하나인 비슈누(Vishnu) 신의 화신인 스리 크리슈나(Sri Krishna)를 숭배의 대상으로 유일신(唯一神)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기존 사회제도(카스트 제도)에 입각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svadharm)을 사심 없이 수행할 것을 설파하는 서사시이다. 이 작품의 핵심은 크리슈나가 전쟁영웅인 아르주나가 전쟁에 대한 회의에 빠졌을 때, 그의 전차몰이꾼인 마부로 헌신하여 그를

비노바는 위가 이상적인 행위인 무욕의 행위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비노바는 하리잔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慈善)을 베푸는 일이 바로 영성의 실천이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비노바는 하리잔(harizan)³⁰⁾의 얼굴에서 신(神)의 형상(形相)을 보지 못한다면, 사회적 실천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사르보다야(Sarvodaya)³¹⁾의 정신 속에는 가장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계층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노바는 부단(Boohan)운동을 언급할 경우도 야즈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³²⁾ 야즈나(Jajna)는 신에게 예물을 봉헌(奉獻)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는 부단운동이 사회적 운동인 동시에 영성을 실천적 행위로서 구현하는 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Talks on Gita 요가적 원리: 실천적 영성의 구현

앞에서 논의를 통해서 비노바의 사회적 실천은 영성(靈性)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노바의 영성은 실천적 영성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비노바의 실천적 영성은 반드시 행위로서 구현되어야 한다. 비노바 바베는 실천영성이 행위로서 구현될 때 어떠한 행위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그의 요가철학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비노바에게 있어서 요가는 개인적인 차원의 심신의 수련의 의미 만으로서는 아니라, 본래부터 인

위로하면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스스로에 지워진 의무와 행위의 길을 설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Vyasa, *Bhagavard Gita*, 정창영 역, 『바가바드 기타』(서울: 물병자리, 1997), 365쪽.

29) *Talks on Gita*는 Vinoba가 정치범으로 수용된 둘리아(Duhle) 감옥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 강론은 매주 일요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Vinoba가 행한 강론을 받아 적어 책으로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사네구루라고 하는 죄수이며, 그는 Gita 18장의 강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강의가 남자 죄수들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여자 죄수들과 간수들도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ML(명상과 혁명)』, 183-186쪽. 이하 *Talks on Gita*를 『ToG(천상의 노래)』로 표기함.

30) 하리잔은 카스트의 최하 계층인 불가촉 천민(不可觸 賤民)에 속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일명 달리트(Dalit)라고도 한다.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인도의 전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31) 사르보다야(Sarvodaya)는 비노바의 스승이자 동역자(同役者)인 간디(M.Ghandi)가 주도한 진리구현운동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신을 깨닫는 것이나, 비노바는 이러한 의미를 확대하여 간디 자신도 이 운동의 의미를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든 행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르보다야 프로그램은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자들에게서 신의 형상과 인간의 선함을 보고자 하는 실천적 영성운동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VBoG(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49-50쪽.

32) 『ML(명상과 혁명)』, 239쪽.

간 개인에게 맡겨진 의무(사회적 역할)를 원활하게 실천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는 요가철학적이 측면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를 스바 다르마(Sva Dharma)라고 명명한 바 있다.³³⁾ 비노바는 이 스바 다르마는 외현적 행위(karma)로서 표출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스바 다르마를 욕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위로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노바의 Talks on Gita에서는 행위를 요가적 실천원리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종교사상의 특징이 실천적 영성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요가철학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행위(karma)는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비노바가 요가철학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위(karma)의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해온 바와 같이 행위를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행위는 욕신을 통해서 구현되는 외현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차원과 연관지어 논의하게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 다르마의 실천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다. 비노바는 제일 먼저 행위요가(karma-yoga)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요가는 사회적 운동가들의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노바가 추구하는 이상적 행위는 바로 무욕의 행위(akarma)이다. 무욕의 행위는 사회적 실천가가 지향해야 할 사심없는 대중을 위한 순수한 행위로 그 의미를 해석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는 영적인 행위 특성을 띠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무욕의 행위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확대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욕의 행위 통해서만이 비노바 바베는 사회적 개혁과 영적혁명을 동시에 완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 하고 있다. 따라서 무욕의 행위는 신애의 정신을 진정하게 구현하는 이상적인 영적 행위³⁴⁾인 동시에 대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욕의 행위를 비노바는 Talks on Gita 에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는 어떠한 과보(果報)도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따

33) 스바다르마(svadharm)는 힌두교적 용어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의무를 뜻한다. 비노바는 스바 다르마를 개인이 행위(karma)로서 구현해야 할 고유한 의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ToG(천상의 노래)』, 135쪽 참조.

34) 『ToG(천상의 노래)』, 54-55쪽.

35) 열매에 연연 해 하지 말아라. 기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너희는 온 힘과 재능을 기울여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는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행동하는 사람의 열매에 이끌리고 있으며, 따라서 크든 작든 그의 시간과 의지 가운데 일부는 열매를 생각하고 꿈꾸는 일에, 바쳐 지게

라서 이러한 무욕의 행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요가철학적인 측면에서 신애(信愛)와 지혜(知慧) 그리고 수행(修行)과 이욕(離欲)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노바는 무욕의 과정³⁶⁾을 위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먼저 정화된 행위(bikarma)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화된 행위는 행위자(실천가)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되는 상태 혹은 행위에 마음이 배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³⁷⁾,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애(bhakti)의 정신이 필요하다. 신애는 행위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노바는 특정 행위가 대중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선한 것일지라도 행위 순수성을 유지하는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열매를 신께 바치는 신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³⁸⁾

비노바는 사회적 실천운동의 영적실현이 신애와 행위의 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개인에게 맡겨진 사회적 의무의 실천이 무엇이든 그것이 행위로서 구현된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이 만일 신애의 정신과 무욕의 행위에 의해서 행해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행위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노바의 요가철학을 토해서 시사 받을 수 있다. 특히 비노바는 이러한 신애의 정신과 결합된 행위의 구현은 수행처에서 만 머물 수 있는 명상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사은 비노바가 추구하는 명상(冥想)이 단지 수행처(Ashram)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종교적 수련 방식으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신애에 기반을 둔 무욕의 행위로서 대중들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실천가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행위의 순수성은 비노바의 요가철학의 핵심주제라고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중략 ... 사심이 없는 행위자는 순수하게 끊임없이 타인에게 섬김을 베풀 뿐입니다. 『ToG(천상의 노래)』, 50-51쪽.

- 36) 이러한 과정을 비노바는 “카르마(karma)+비카르마(bikarma)=아카르마(akarma)”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열매를 바라지 않는 무욕의 행위 아카르마는 외현적 행동인 카르마와 마음의 정화를 의미하는 비 카르마와의 결합적 상태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oG(천상의 노래)』, 89쪽.
- 37) 마음은 행동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기타』에서는 비카르마라고 부르고 있지요. 행동에는 외적으로 한 사람의 스바 다르마가 되는 일반적인 행위가 있고, 또 특별한 내적 행위가 있습니다. 중략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카르마를 수행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적인 과정과 외적인 행위를 일치시킬 때에야 비로소 무욕이 그 카르마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ToG(천상의 노래)』, 89-90쪽.
- 38) 우리는 행위를 수행하되, 그 열매는 내던지지 말고 신에게 바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열매를 던지는 것은 열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신에게 바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열매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열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무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ToG(천상의 노래)』, 222쪽.
- 39) 비노바는 라자요가(rajā-yoga)를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명상요가라고 하지만, 비노바는 신애와 행위의 결합을 명상의 차원으로 까지 승화하는 것을 라자요가에 가장 합당한 정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ToG(천상의 노래)』, 229쪽 참조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노바는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노바는 무욕의 행위는 그 가치가 무한한 것이지만, 그러한 무욕의 행위는 반드시 지혜(jñāna)⁴⁰⁾를 동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행위는 지혜와 합치될 때만이 무욕(無欲)의 행위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¹⁾ 비노바는 이러한 점에서 지혜를 신애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관련하여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노바는 지혜(知慧)를 근본적으로 신애로부터 태동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비록 지혜가 매우 중요한 능력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신애와 연관 속에서만이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혜 요가는 신애 요가와 연관이 있고 동시에 행위의 요가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노바의 요가철학적 체계 속에서 지혜와 신애 그리고 행위의 세가지 요소들은 밀접한 상호 연관성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노바의 요가의 네 번째 차원이 명상요가(dīanān-yoga)이다. 비노바는 명상(冥想)요가는 수행(修行)과 이욕(離欲)이외에도 기법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정신집중이 강조된다고 보고 있다.⁴²⁾ 명상요가를 앞에서 사회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명상의 이러한 성격이 명상 자체의 수행 방법론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명상은 일차적으로는 수행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명상에서는 특히 정신집중을 요구하는데, 이 때 그 대상은 신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상요가는 신(神)의 현존(現存)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론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명상요가는 신애(bhakti)의 감정과 신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jñāna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요가적 요소들이 지향하는 대상이 모두 공통적으로 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상요가는 기층민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무욕의 실천적 행위 자체가 신을 향한 신애의 구현인 동시에 명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상은 단지 영적 차원에서의 수련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대중들을 위한 행위적 실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0) 비노바는 지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신앙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상적인 신앙인을 지혜자-성인(jñānai-bhata)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혜자 성인의 특징을 신의 부드러움과,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신(神)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인물로 표현함으로써 지혜의 특성이 신과 관련된 근본적 지식임을 시사하고 있다. 『ToG(천상의 노래)』, 132-135쪽 참조.

41) 이러한 사실을 비노바는 “즈나나(jñāna)+카르마(karma)=즈나나(jñāna)+아카르마(akarma)”와 같이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등식은 행위에 지혜가 내재될 때만이 지혜로운 무욕의 행위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oG(천상의 노래)』, 133쪽 참조.

42) 명상요가에서의 수행과 이욕이외에도 정신집중, 삶의 절제 균형 잡힌 견해가 강조된다. 먼저, 정신 집중은 타마스(tmams: 無明)에 빠지거나 라마스(ramas: 熱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절제는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에 대해서 탐닉하지 않고 이를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균형 잡힌 견해는 세상을 항상 긍정적이고 상서로운 것으로 보는 관점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ToG(천상의 노래)』, 140-149쪽.

3. 교육적 실천에의 요가적 적용

앞에서 언급된 네 가지 요가적 방식은 모두 요가철학적 구조적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영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원리를 비노바는 나이 탈림(Nai Talim)과 같은 신교육운동을 통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구현하려고 하였다. 비노바의 교육적 실천은 영적인 특성에 기초해 있지만, 특정 종파(宗派)에 입각한 협의의 종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종교교육은 보편적인 영성추구를 위한 교육이며, 일반교육을 통해서도 어린이의 종교심을 도야시킬 수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의 종교와 교육인 종교적인 교육인 동시에 교육적인 종교로서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앞 절을 중심으로 제시된 비노바의 요가 철학적 원리의 요소와 강조점들은 비노바가 추구하는 교육적 일반원리로서도 환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노바의 요가의 방법론적 체계에 내포된 특징들은 사회혁신적 측면과 교육적 실천원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체계로서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유상덕은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비노바의 요가철학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그들이 교육의 근본목적을 ‘자기 자신에 대한 앎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즈나나 요가(jñāna)-yoga) 곧 지식의 길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붙들고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맞서는 사티아 그라하 인격에 도달하는 것은 박티 요가(bhakti-yoga) …… 생각과 행위의 일치, 곧 실천을 중요시 하는 교육원칙은 《바가바드 기타》에 카르마 요가(karma-yoga) 곧 행위의 길 속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⁴³⁾

교육이 영성적 측면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요가철학적 원리에 대한 체계적 적용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된 인용문은 교육은 단지 지식만을 추구하는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은 진리정신의 추구, 생각과 행위의 일치, 실천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교육은 따라서 종교성(영성)과 사회적 실천을 통합된 활동으로서 이끌어내는 실천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단순히 특정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활

43) 유상덕, 앞의 글, 15.

동(지혜의 요가)과 대중들을 위한 다르마적 실천에 헌신하는 것(신애요가),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실천 행위를 무욕의 행위로서 실천하는 원리(행위 요가)의 관점에서 재해석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비노바의 종교사상은 특정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종교성(영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특정한 카스트 혹은 국가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강조하지도 않는다. 비노바가 지향하는 종교적 정신은 보편적 영성에 대한 추구이며, 사회적 실천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종교성(영성)의 사회적 실현, 실천적 영성을 완성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이 논문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노바가 추구한 사상적 특징은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실천과 영성이 종합되어 있는 힌두적 정신의 본질적인 양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종교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다르마의 실천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고, 신에 대한 헌신의 정신 대중들을 신을 받들 듯이 섬기는 정신(헌신적 봉사)과 일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비노바의 종교사상이 사회적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종교사상은 실천적 영성(practical spirituality)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의 성숙과 사회의 개혁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교육적 메시지를 내재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교육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종교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실천 측면에서는 사회교육적 목적을 내재하고 있다. 그의 교육론은 영적인 동시에 사회실천적이며, 삶과 삶의 통합적 보편적 교육원리를 추구하는 일반교육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기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노바 바베의 요가철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비노바의 요가철학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육체적인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수행론을 넘어서고 있다. 그의 요가는 사회적 의무에 대한 영적실현을 의미하는 요가다르마(Yoga Dharma)를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비노바가 제시하고 있는 요가철학은 이 논문에서 논의된 사회적 실천과 종교성(영성) 그리고 교육을 실질적 통합하는 실천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요가철학은 일차적으로는 영적 수련의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욕의 행위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사회적 실천의 의미가 통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실천가들의 행위가 개

인적 집단적 이해에 좌우 되지 않고 영적차원으로 실현될 때만이 사회적 실천과 영성을 통한 진실한 의미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비노바는 자신의 종교사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노바 바베는 인도의 고전에 근거하여, 종교적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지식을 현실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재적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종교교육은 요가철학적인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비노바 바베의 종교사상은 사회운동과 진리추구를 위한 영성의 구현, 교육적 실천을 구조적이 측면에서 상호 연계하고 있는 통합적 종교 사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 탐색」, 한국종교 교육학회 편, 『종교 교육학연구 제 23권』, 서우리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7-30.
- 김진 편역, 『홀로 걸으라, 그대 가장 행복한 이여: Vinoba Bhave 포토 명상집』, 서울: 예담, 2006.
- 유상덕,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의 교사론적 함의」, 미발표 논문, 2005.
- 이태영, 『요가철학』, 서울: 이레, 2003, 34-35
- 최영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교육-Vinoba Bhave의 나이 탈림(신교육 운동)」, 만해 NGO 교육센터, 씨알 평화 창립 기념 발표논문, 2006.
- Kalandhi, *Moved My Love: The Memories of Vinoba Bhave*, 김문호 옮김, 『명상과 혁명』, 서울: 실천 문학사, 2012. 『ML(명상과 혁명)』로 표기.
- Kumarappa, B. *Toward New Education*, Ahmedabad: Navajivan Publishing House, 1953.
- Kumar, Satish, *The Intimate and Ultimate*, 김문호 옮김, 『버리고 행복하라』, 서울: 산해, 2003. 『TIU(버리고 행복하라)』로 표기.
- Vinoba Bhave, *Talks on Gita*, 김문호 옮김, 『천상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 이야기』, 서울: 실천 문학사, 2002. 『ToG(천상의 노래)』로 표기
- Vionba Bhave, *Vinoba Bhave on Gandhi*, 김문호 옮김, 『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서울: 오늘의 책, 2003. 『VBoG(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로 표기.

- Vinoba Bhave, *Thought on Education*. 김성호 옮김, 『삶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가르치라』, 서울: 씨알 평화, 2007.
- Vinoba Bhave, *Thought on Education*. 김성호 옮김,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서울: 착한 책가게, 2014. 『ToE(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로 표기.
- Vyasa, *Bhagavard Gita*, 정창영 역, 『바가바드 기타』, 서울: 물병자리, 1997.
- Zachner, R.C. 《Hinduism》, 남수용 옮김, 『힌두이즘』, 서울: 여래, 1996.
- <http://about.jstor.org/terms> Journal of Asian Studies, 〈Talks on Gita〉.
- <http://www.jstor.org/strable> The World Today, 1958. The Land Gift Movement in Inda: 〈Vinoba Bhave and his Achivement〉
- <http://terms.nave.com/enry.njhn?docld>(Naver 종교학 대사전)

원고접수일: 2018년 1월 20일 심사일: 2018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연구자 소개: 고진호

① 전공: 교육과정, 영성교육학/ 소속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교육학, 불교교육학, 종교학

③ 주요논저: 『교육의 철학적 이해』, 『종교성: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과정학의 이론과 실천』

④E-mail: kojinho@dgu.edu.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Principle for Integrative Practice in Vinoba Bhave's
Religious Thoughts : Focused on His Yoga Philosophy

Ko, Jin-Ho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integrated practice in religious thoughts of Vinoba Bhave. His religious ideas are meant to practice spirituality through devotion to God and social practice for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In this paper His educational practice which called Naitalim(the movement of New Education) can recognize the meaning of these religions as intrinsic activities that serve as a public awareness of practical spirituality.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spirituality, soci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practice have a unified link within the religious thoughts of Vinoba Bhave And in this respect, Vinoba's religious ideas are meant to provide a principle of education while pursuing social reform and spiritual revolution. Vinoba's philosophical principles of Yoga, the heart of the religious thought, are based on the Indian classic «Baghavard Gita». Vinoba describes the content of yoga philosophy in detail through her writings «Talks on Gita», and in this paper, it is mainly explained principles of in Yoga philosophy that is described in this book. Vinoba's philosophical principles of yoga mean a point of practice that unifies the spirituality and practice of Dharma(society duties). Vinoba's religious thoughts present practical spirituality, which is the purpose of which is to achieve a person's spiritual maturity and social reform. In this respect, this paper discusses Vinoba's religious thoughts which provide combined features of in practical spirituality, social improvement and educational activities. And based on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structural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yoga philosophy which can integrates religious behavior and social movement and educational practice in a point of view in integrated practice.

Key words : Vinoba Bhave, Yoga philosophy, Talks on Gita, Integrated Principles of Religious thoughts, Spirituality, Dharma